

## 간호사의 유방암 정기 건강검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심은순<sup>1</sup> · 유병철

<sup>1</sup>고신대학교 보건대학원,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Influencing Factors of Periodic Medical Check-up of Breast Cancer Among Nurses

Eun-Soon Sim<sup>1</sup> · Byeng-Chul Yu

<sup>1</sup>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Kosin University, Busan, Korea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Kosin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Busan, Korea

#### Abstract

**Background** : To access the influencing factors of periodic medical check-up of breast cancer in nurses and to contribute the prevention of breast cancer through the medium of increasing performance rate of periodic medical check-up of breast cancer.

**Method** : We conducted CHBMS questionnaire survey during January 2008 till August 2008. The data was collected from questionnaires filled out by 461 nurses working in various hospitals located in Busan and Gyeongsangnam-do.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descriptive analysis, cho-square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using SAS Win(ver 9.0k) program.

**Result** : The performance rate of periodic medical check-up of breast cancer and breast self-examination were 15.62% and 22.83%, respectively. The influencing factors of periodic medical check-up of breast cancer in nurses were medical check-up history of other female cancer(OR=8.33, 95% CI : 2.39 - 9.02), self-examination of breast cancer(OR=2.99, 95% CI : 1.42 - 6.29), confidence(OR=1.05, 95% CI : 1.01 - 1.09) and health motivation(OR=1.29, 95% CI : 1.06 - 1.56) in health belief.

**Conclusion** : The performance rate of periodic medical check-up of breast cancer was lower than that of general women population in Korea. In order to improve performance rate of periodic medical check-up of breast cancer in nurses, method of multiple female cancer screening and elevation of self-breast examination performance rate are needed.

**Key words** : Periodic medical check-up, Breast cancer, Nurse, Self-examination

#### 서 론

유방암은 여성암 중 세계에서 가장 흔한 암으로 세계적으로 여성 암 발생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에서 2002년 사이의 유방암 연령표준화 발생률이 인구 십만명 당 27.0명 이었으며, 여성암 발생 순위에서 위암에 이어 2위로 나타났다.<sup>1)</sup> 우리나라 유방암 발생 증가는 비만인구의 증가, 식생활습관의 서구화,

여성 사회활동 증가로 인한 늦은 결혼, 저출산 및 모유수유, 빠른 초경 연령 및 정기검진에 의한 유방암 조기 발견의 증가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sup>2)</sup> 우리나라의 유방암 발생 양상은 연령의 증가와 함께 빈도가 증가하는 서구와 달리 50대 이후에는 감소하는 단일봉 형태로 나타나기에 35세 이하 여성의 유방암 발생률이 외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sup>3)</sup> 유방암은 젊은 여성이 고연령자보다 예후가 나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한국 여성에서 유방암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sup>4)</sup>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유방암 환자가 스스로 종양을 발견하여 내원하는 경우가 많기

교신저자 : 유 병 철  
주소 : 602-702 부산광역시 서구 압남동 34번지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TEL : 051-990-6425 FAX : 051-990-3081  
E-Mail : ybc777@kosinmed.or.kr

에 진행된 암이 보고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러한 상황은 유방암의 예후와도 관련이 된다. 1993년에서 2002년 사이에 중앙 암등록본부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유방암 환자의 병기별 상대생존율은 1기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을 97.9%, 2기 90.9%, 3기 67.0%, 4기 27.6%로 나타났다.<sup>5,6)</sup> 이처럼 유방암 발견 시기와 예후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에 유방암의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들이 강조되고 있다.

국립암센터는 유방암 조기진단을 위해 30세 이상의 여성인 경우 매달 유방자가검진을 이행하고, 35세 이상의 여성은 2년 간격으로 유방진찰을 받으며, 40세 이상이 되면 유방진찰과 유방촬영술을 병행하여 1~2년 간격으로 검사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유방암 검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계층의 여성들에게 유방촬영술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무료검진 대상자가 아닌 여성에게는 유방촬영술 비용의 80%를 지원하고 있다.<sup>7,8)</sup> 그러나 검진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여성들의 유방자가검진 실천율은 약 23~38%로 보고되고 있으며<sup>5,9,10)</sup>, 유방촬영술 검진율은 48.8%로<sup>11)</sup> 낮은 수준이다. 특히,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의 유방암 검진실태는 더욱 저조하여 유방자가검진 실천율은 약 12~17%<sup>12,13)</sup>, 유방촬영술 검진율은 약 15.7%로 보고되고 있다.<sup>14)</sup> 우리나라는 30~40대 여성의 약 61%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sup>15)</sup> 40대 여성에서 유방암 발생이 가장 많고, 30대 여성에서 그 발생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에<sup>8)</sup> 취업여성의 저조한 유방암 검진실태에 대한 관심과 개선이 요구된다.

건강관련 전문직으로 여성의 비중이 높은 간호사는 자신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일반 여성들의 바람직한 생활습관 형성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sup>16)</sup> 따라서 이들의 건강관련 행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인들의 건강관련 행태와 함께 고려할 때 보건의적 효과는 더욱 증가할 수 있다.<sup>17)</sup> 그러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유방암 관련 건강행태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시행되었기에<sup>18)</sup>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간호사들의 유방암검진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요인들을 파악하여 건강관련 직종 여성들의 관련 건강행태수준을 유추하고, 이들의 유방암 예방과 건

강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행 하였다.

## 연구대상과 방법

### 1. 연구대상 및 기간

부산·경남지역에 위치한 15개 병원(3차병원 3개, 2차병원 8개, 1차병원 4개)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2008년 3월에서 2008년 9월 까지 시행하였다.

### 2. 연구방법

#### 가. 설문지의 구성과 신뢰도

조사도구는 한미연<sup>17)</sup>이 개발한 설문지를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일부 수정하여 활용하였으며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473명 이었으며, 불완전하게 기재된 설문지 작성자를 제외한 461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일반적인 특성, 건강상태 및 생활양식에 관한 문항, 여성건강 특성에 관한 문항, 유방건강관련 문항, 유방암과 유방자가검진에 관한 건강신념에 관한 문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유방암과 유방자가검진에 관한 건강신념측정은 Champion<sup>19)</sup>이 개발한 총 42문항의 Champion's health belief model scale(CHBMS)을 이은현 등<sup>20)</sup>이 한국형으로 수정한 총 36문항의 CHBMS-Korean version을 사용하였다. 건강신념의 질병통제 행위를 하기 위해 인간이 지니는 신념이며<sup>21)</sup> 민감성, 심각성, 유익성, 장애성, 확신성 및 건강동기 등의 하부영역으로 구성되었다. Cronbach's α 방법을 이용하여 설문지의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기대수준과 경험수준의 신뢰도계수는 민감성 0.93, 심각성 0.84, 유익성 0.81, 장애성 0.84, 확신성 0.87, 건강동기 0.90로 나타났다

#### 나. 측정방법

유방암과 유방자가검진에 관한 건강신념측정 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서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및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장애성 점수는 역산하여 점

수가 높을수록 장애를 적게 인지하는 것으로 측정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최저 36점에서 최고 1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유방암과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건강신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각 하부영역은 문항의 개수가 달라 5점 척도의 문항평균을 구해 상대적 크기를 비교하였다.

### 3. 자료분석 방법

자료의 분석은 SAS(ver 9.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적 분석, 교차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신뢰도 검증 등을 실시하였으며 유의수준은  $p < 0.05$ 로 하였다.

## 결 과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은 20-29세가 222명(48.26%)로 가장 많았고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 251명(54.45%)이었다. 학력은 전문대 졸업이 258명(57.59%), 월 가계수입은 100-199만원이 141명(31.27%), 직장경력은 5년 미만이 182명(39.48%)로 가장 많았으며 근무형태는 교대근무가 289명(63.10%), 상근 근무자(주간 근무자)가 168명(36.68%)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Variables	Classification	Frequency	%
Age(years) (n=460)	20-29	222	48.26
	30-39	136	29.57
	40-49	90	19.57
	50 ≤	12	2.60
Marriage	No	251	54.45
	Yes	210	45.55
Education (n=448)	College	258	57.59
	University	160	35.71
	Graduate school	30	6.70
Monthly income (10,000 Won) (n=451)	100-199	141	31.27
	200-299	95	21.06
	300-399	93	20.62
	400-599	83	18.40
	600 ≤	39	8.65
Tenure (years)	5 >	182	39.48
	5-9	96	20.82
	10-14	62	13.45
	15 ≤	121	26.25
Work type (n=457)	Day duty	168	36.76
	Shift work	289	63.24
Total		461	100.00

### 2. 연구대상자의 건강관련 특성

연구대상자의 건강관련 특성은 음주를 하는 군이 217명(47.28%), 음주를 하지 않는 군이 242명(52.72%)이었으며, 흡연을 하지 않는 군이 457명(99.78%)으로 나타났다. 운동을 하는 군은 184명(39.91%), 운동을 하지 않는 군이 457명(60.09%)이었다. 경구피임약을 복용하는 군은 38명(8.41%), 경구피임약을 복용하지 않는 군은 414명(91.59%)으로 나타났으며, 출산경험이 있는 군 183명(39.78%), 출산경험이 없는 군 277명(60.22%)으로 나타났다. 유방암 이외의 다른 여성암 검진경험이 있는 군이 192명(41.83%), 유방질환 과거력이 있는 군이 22명(4.78%), 유방암 가족력이 있는 군이 27명(5.90%), 유방자가검진을 하는 군이 105명(22.83%)으로 나타났다. 유방암 정기검진에서는 정기 건강검진을 하는 군이 72명(15.62%), 하지 않는 군이 389명(84.38%)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Health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Variables	Classification	Frequency	%
Alcohol (n=459)	Yes	217	47.28
	No	242	52.72
Smoking (n=458)	Yes	1	0.22
	No	457	99.78
Exercise	Yes	184	39.91
	No	277	60.09
Use of oral pill (n=452)	Yes	38	8.41
	No	414	91.59
Delivery history (n=460)	Yes	183	39.78
	No	277	60.22
Medical check-up history of other female cancer (n=459)	Yes	192	41.83
	No	267	58.17
Past history of breast disease (n=460)	Yes	22	4.78
	No	438	95.22
Family history of breast cancer (n=458)	Yes	27	5.90
	No	431	94.10
Self-examination of breast cancer (n=459)	Yes	105	22.83
	No	354	77.17
Periodic medical check-up of breast cancer	Yes	72	15.62
	No	389	84.38
Total		461	100.00

### 3. 연구대상자의 유방암 자가검진 건강신념 수준

유방암 자가검진에 대한 전체 건강신념 수준은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3.29 \pm 0.30$  이었다. 건강신념 하부영역별 수준은 민감성  $1.89 \pm 0.68$ , 심각성  $3.16 \pm 0.68$ , 유익성  $3.98 \pm 0.53$ , 장애성  $4.15 \pm 0.54$ , 확산

성 2.99 ± 0.63, 건강동기 4.40 ± 0.57로 나타나, 건강동기 영역에서 가장 높고 민감성 영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3).

Table 3. Health belief score of self-examination of breast cancer in study subjects

Variables	Score(Mean ± SD)
Health belief	3.29 ± 0.30
Susceptibility	1.89 ± 0.68
Seriousness	3.16 ± 0.68
Benefit	3.98 ± 0.53
Barriers	4.15 ± 0.54
Confidence	2.99 ± 0.63
Health motivation	4.40 ± 0.57

#### 4.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방암 정기 건강검진율 비교

결혼상태에 따른 유방암 정기 건강검진율은 미혼 3.59%, 기혼 30.00%로 나타나 기혼여성에서 유방암 정기검진 시행율이 유의하게 높았으며(p < 0.001), 연령에 따라서는 20대 2.70%, 30대 13.24%, 40대 42.22%, 50대 이상 83.33%로 나타나 연령의 증가에 따라 유방암 정기 건강검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학력에 따라서는 전문대 졸업 11.24%, 대학교졸업 16.25%, 대학원 졸업 33.33%로 학력이 높을수록 유방암 정기 검진율이 높게 나타났고(p=0.004), 월 가계수입에서도 월 가계수입이 가장 낮은 군 6.34%, 중간 군 24.4%, 가장 높은 군 30.77%로 나타나 월 가계수입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001). 직장경력에서는 5년 미만, 5-9년, 10-14년, 15년 이상의 경력에 따라 각각 3.30%, 5.21%, 20.97%, 39.67%로 나타나 직장경력이 많은 군에서 유방암 정기검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p < 0.001), 근무형태에 따라서는 주간 근무군 26.19%, 교대 근무군 9.34%로 주간 근무군이 유의하게 높았다(p < 0.001)(Table 4).

Table 4. Comparison of periodic medical check-up of breast cancer by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Classification	Periodic medical check-up of breast cancer (%)		p
		Yes	No	
Marriage	No	9 (3.59)	242(96.41)	< 0.001
	Yes	63(30.00)	147(70.00)	
Age(year)	20-29	6 (2.70)	216(97.30)	< 0.001
	30-39	18(13.24)	118(86.76)	
	40-49	38(42.22)	52(57.78)	
	50 ≤	10(83.33)	2(16.67)	
Education	College	29(11.24)	229(88.76)	0.004
	University	26(16.25)	134(83.75)	
	Graduate school	10(33.33)	20(66.67)	
Monthly income (10,000 won)	100-199	9 (6.43)	131(93.57)	< 0.001
	200-299	7 (7.37)	88(92.63)	
	300-399	23(24.73)	70(75.27)	
	400-599	20(24.10)	63(75.90)	
	600 ≤	12(30.77)	27(69.23)	
Tenure(year)	5 >	6 (3.30)	176(96.70)	< 0.001
	5-9	5 (5.21)	91(94.79)	
	10-14	13(20.97)	49(79.03)	
	15 ≤	48(39.67)	73(60.33)	
Work type	Day duty	44(26.19)	124(63.81)	< 0.001
	Shift work	27 (9.34)	262(90.66)	

#### 5. 연구대상자의 건강관련 특성에 따른 유방암 정기 건강검진율 비교

음주여부에 따른 유방암 정기 건강검진율은 음주를 하는 군 10.14%, 하지 않는 군 20.66%로 음주를 하지 않는 군이 유의하게 높았다(p=0.002). 흡연과 운동 여부에 따라서는 흡연을 하지 않는 군 15.17%, 운동을 하는 군 17.93%로 각각 흡연을 하는 군과 운동을 하지 않는 군에 비하여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경구피임약 사용 여부와 유방암 가족력 여부에 따라서는 경구피임약 사용하는 군 23.68%, 유방암 가족력이 있는 군 22.22%로 각각 그렇지 않은 군보다 높은 정기 건강검진율을 나타내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분만경험에 따라서는 경험이 있는 군과 없는 군이 각각 33.33%, 3.97%로 나타났으며 다른 여성암 검진 경험 여부에 따라서는 검진 경험이 있는 군과 없는 군이 각각 33.85%, 2.62%로 나타나 분만경험이 있는 군과 다른 여성암 검진 경험이 있는 군에서 유방암 정기검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p < 0.001). 유방질환의 과거력 여부에 따라서는

유방질환의 과거력이 있는 군이 40.91%, 없는 군이 14.38%로 나타났고( $p=0.001$ ), 유방암 자가검진 시행 여부에 따라서는 시행하는 군이 39.05%, 하지 않는 군이 8.63%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p < 0.001$ )(Table 5).

Table 5. Comparison of periodic medical check-up of breast cancer by health characteristics

Variables	Classification	Periodic medical check-up of breast cancer (%)		p
		Yes	No	
Alcohol	Yes	22(10.14)	195(89.86)	0.002
	No	50(20.66)	192(79.34)	
Smoking	Yes	0 (0.00)	1(100.00)	0.062
	No	71(15.57)	385(84.43)	
Exercise	Yes	33(17.93)	151(82.07)	0.264
	No	39(14.07)	238(85.93)	
Use of oral pill	Yes	9(23.68)	29(76.32)	0.144
	No	61(14.63)	353(85.37)	
Delivery history	Yes	61(33.33)	122(66.67)	< 0.001
	No	11(3.97)	266(96.03)	
Medical check-up history of other female cancer	Yes	65(33.85)	127(66.15)	< 0.001
	No	7 (2.62)	260(97.38)	
Past history of breast disease	Yes	9(40.91)	13(59.09)	0.001
	No	63(14.38)	375(85.62)	
Family history of breast cancer	Yes	6(22.22)	21(77.78)	0.320
	No	65(15.08)	366(84.92)	
Self-examination of breast cancer	Yes	41(39.05)	64(60.95)	< 0.001
	No	31 (8.63)	324(91.27)	

## 6. 간호사의 유방암 정기 건강검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사의 유방암 정기 건강검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유방암 정기검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른 여성암 검진 시행여부, 유방암 자가검진 시행여부, 유방암 자가검진 건강신념 하부 요인 중 확신성과 건강동기 등으로 나타났다. 다른 여성암 검진 시행여부에 따라서는 ‘시행하지 않는 군’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시행하는 군’의 교차비가 8.33(95% CI : 2.39 - 9.02)

이였으며, 유방암 자가검진 여부에 따라서는 ‘자가검진을 시행하지 않는 군’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자가검진을 시행 하는 군’의 교차비가 2.99(95% CI : 1.42 - 6.29)로 나타났다.

건강신념에 대한 세부요인의 교차비는 확신성 1.05(95% CI : 1.01 - 1.09), 건강동기 1.29(95% CI : 1.06 - 1.56)로 나타나 유방암 정기 건강검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Table 6).

Table 6. Influencing factors of periodic medical check-up of breast cancer among nurses

Variables	Classifications	Odds ratio	(95% CI)	p
Medical check-up history of other female cancer	No	1		< 0.001
	Yes	8.331	(2.39 - 9.02)	
Self-examination of breast cancer	No	1		0.004
	Yes	2.99	(1.42 - 6.29)	
Health belief	Susceptibility	0.98	(0.93 - 1.04)	0.52
	Seriousness	0.96	(0.88 - 1.05)	0.37
	Benefit	1.03	(0.88 - 1.18)	0.71
	Barriers	0.96	(0.86 - 1.05)	0.36
	Confidence	1.05	(1.01 - 1.09)	0.01
	Health motivation	1.29	(1.06 - 1.56)	0.01

## 고찰

부산·경남 지역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유방암 정기 건강검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유방암 정기 건강검진 시행율은 15.62%, 유방 자가검진 실행율은 22.83%로 조사 되었으며, 이는 국민 건강영양조사<sup>22)</sup>에서 보고한 우리나라 여성의 유방암 검진율(30.44%)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김은경 등<sup>23)</sup>의 연구에서 보고된 유방자가검진 시행율(26.0%), 이창현 등<sup>18)</sup>의 연구에서 보고된 산업체 의무실 간호사의 유방자가검진 시행율(72.1%)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실행율은 본 연구의 대상자 중 20-30대가 77.83%, 미혼이 54.45%이므로, 많은 대상자들이 유방암에 대하여 관심이 적은 연령인 것과 검진 과정의 수치심에 대

한 걱정이 많은 시기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2008년 국민건강영양조사<sup>22)</sup>의 20-30대 일반인 유방암 검진 시행율이 28.89%로 나타나 본 연구의 유방암 검진율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기에, 본 연구의 대상자가 젊은 연령층임을 고려하더라도 유방암 검진 시행율은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 방법으로 임의표본추출을 활용 하였기에 표본의 대표성이 떨어져서 나타난 결과라고 추정되며, 다양한 변수의 분포가 고르지 않게 나타난 것도 이런 현상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된다.

일반적인 특성에서는 결혼을 한 경우, 연령이 높은 경우, 학력이 높은 경우, 직장경력이 많은 경우, 근무형태가 주간근무인 경우 등에서 유방암 정기검진 시행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입이 많을수록, 기혼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유방암 조기검진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김영임 등<sup>24)</sup>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방암 정기 건강검진 시행율도 낮을 뿐만 아니라, 이창현 등<sup>18)</sup>의 연구에 의하면 많은 미혼자에서 전문의 진찰, 유방촬영술 등의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최근 30대 여성에게서 유방암 발생율이 점차적으로 증가<sup>6)</sup>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보다 젊은 연령층에서도 유방암 조기검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 만 40세부터 지원하고 있는 국가 암 검진에 대한 연령대 하향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령이 높을수록 유방암 정기검진 시행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유방암의 발생율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한 만 40세 이상부터 적용받는 국가암 관리사업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근무형태에서 교대근무의 경우 9.3%, 주간근무의 경우 26.2%로 주간 근무자의 유방암 정기 건강검진 시행율이 교대근무자들 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덴마크에서는 6개월 정도 야근을 한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50%정도 높았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sup>25)</sup> 이는 유방암의 위험요소가 여성의 근무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간호사의 경우 다른 직업의 여성들과 달리 야간근무를 해야 하는 직무의 특수성이 유방암 위험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를 함께 고려하면 야근에 의한 유방암 발생 위험이 높은 교대근무자들의

유방암 검진 시행율이 주간근무자 보다 낮기에 이에 대한 대비와 자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는 교대근무 간호사들은 대개 나이가 젊고 미혼인 경우가 많기에 유방암에 관심이 적은 연령에 의해 나타난 교란효과의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추정된다.

건강관련 특성에서는 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 출산경험이 있는 경우, 다른 여성암 검진경험이 있는 경우, 유방질환에 대한 과거력이 있는 경우, 유방자가검진을 하는 경우에서 유방암 정기검진 시행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산업장 의무실 근무 간호사에서 유방질환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에 유방 자가검진을 더욱 잘 수행한다는 이창현 등<sup>18)</sup>의 연구결과와 비슷하였으며 기존질환 또는 유사질환에 대한 경험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나 관련 질환에 대한 두려움을 높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추정된다.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유방암 가족력이 있는 대상자의 유방암 정기검진 시행율이 22.22%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에 저자들은 연구대상자들을 유방암 가족력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을 결혼여부와 연령으로 다시 층화하여 재분석 하였다. 그 결과 유방암 가족력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미혼이 74%, 연령이 20-29세인 군이 70.4%로 대부분 젊은 미혼여성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방암 가족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방암 정기검진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인식하지 못하기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유방암 정기검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유방암 정기검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은 유방암 이외의 다른 여성암 검진 경험이 없는 군에 비해 경험이 있는 군의 유방암 정기검진 시행이 8.33배(95%CI : 2.39 - 9.0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궁경부암에 대한 예방적 검진행위 관련요인에서 다른 암 검진이나 건강검진 경험이 있는 군이 없는 군보다 자궁경부암 검진 이행율이 5.04배 높게 나타난 오은주<sup>26)</sup>의 연구와 비슷하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김영복 등<sup>27)</sup>은 자궁경부암과 유방암 등의 암 조기검진 행위는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여성암 검진은 독립적인 개별검진보다 2 가지 이상의 복합검진이 바람직하고, 여성암의 효과적인 예방

을 위하여 여성암 검진 미경험자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여성암 검진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유방자가검진을 실행하는 군은 실행하지 않는 군에 비해 유방암 정기검진 시행이 2.99배(95%CI : 1.42 - 6.2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방자가검진을 수행하는 군에서 의사진찰 경험율이 높고, 유방촬영술을 수행율이 높다고 보고한 김영임 등<sup>24)</sup>의 연구와 일치하며 직장여성에서 유방자가검진 경험이 있는 여성이 다른 유방암 검사를 수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한미연<sup>17)</sup>의 연구 결과와도 비슷하다. 이는 자신의 유방건강에 대한 관심이 예방적 건강행위를 하는데 동기부여가 되기에 나타난 현상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유방자가검진을 규칙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다른 유방암 검사 시행율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에, 유방암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유방 자가검진의 활성화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건강행위를 설명하는 인지적 특성인 건강신념에 대한 분석에서 대상자들은 유방자가검진의 유의성을 높게 인식하였고, 유방자가검진 행위에 대해서도 큰 장애를 느끼지 않았으며 건강동기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자신이 유방암에 걸릴 수도 있다는 민감성과 유방자가검진 수행 및 결과에 대한 확신성에서도 점수가 낮았다. 건강신념의 변수 중에서 장애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유방자가검진 수행이 긍정적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민감성에서 점수가 가장 낮은 것은 자신이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낮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건강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자신에게 유방암이 발병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유방암 정기 검진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신념의 세부변수는 확신성과 건강동기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여성의 유방암 조기검진행위에서 유방자가검진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확신성으로 나타난 한미연 등<sup>28)</sup>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며, 건강에 대한 확신성이 높을수록 유방자가검진 수행을 잘 하기에 확신성과 건강동기를 강화시키는 교육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교육을 통해 유방자가검진 수행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 준다면 유방자가검진 시행율의 상승 시

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유방자가검진의 중요성을 아는 것보다는 검진기술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을 때와 유방자가검진 기술을 제대로 지도 받았을 때 유방자가검진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sup>29)</sup> 실질적인 유방자가검진 기술을 직접 보고 익히는 실습중심의 교육을 통한 기술획득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직종의 여성을 만날 수 있는 간호사는 먼저 자신의 유방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실천으로 대상자에게 유방질환에 대한 이해와 정기검진에 대해 보다 확신 있는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유방암 예방과 관련하여 여성들의 유방자가검진 실천율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른 유방암 정기 건강검진율을 상승 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과 교육방법 등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와 지원이 중요할 것이다.

## 결 론

2008년 7월에서 2008년 8월까지 부산·경남지역에 근무하는 간호사 461명을 대상으로 유방암 정기 건강검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시행한 후, SAS(ver 9.1)를 이용하여 기술적 분석, 교차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유방 자가검진을 실행하는 연구대상자는 22.8%, 유방암 정기검진을 시행하는 연구대상자는 15.6%로 나타났다. 유방 자가검진 건강신념은  $3.29 \pm 0.30$ 였으며, 하부영역들 중 건강동기 영역이  $4.40 \pm 0.57$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민감성 영역이  $1.89 \pm 0.68$ 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유방암 정기 건강검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른 여성암 검진경험이 있는 것(OR = 8.33, 95% CI : 2.392 - 29.020), 유방 자가검진을 실행(OR = 2.992, 95% CI : 1.422 - 6.290)으로 나타났다. 유방암 정기 건강검진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신념 변수의 세부요인은 확신성(OR = 1.05, 95% CI : 1.01 - 1.09)과 건강동기(OR = 1.29, 95% CI : 1.06 - 1.56)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유방암 정기 건강검진 시행율은 일반인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간호사의 유방암 정기 건강검진 시행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여성암 건강검진이 시행되어야 하고, 평상시 유방자가 검진 시행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 유방암 검진 질 지침, 2008
- 2) 손병호, 안세현: 한국인 유방암 환자들의 생존율 분석. 한국유방암 학회지 9(3): 215, 2006
- 3) Yoo KY., Park SK., Lee KS, & Ha MN: The study relation in the prediction model of breast occurrence concerning around the strategy of cancer prevention. Korea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port, 1995
- 4) Suh CO, & Shin HS: The national survey of breast carcinoma treatment in Korea and the evaluation of cost-effectiveness of radiotherapy, 2000
- 5) 최경옥, 서연옥: 유방자가검진 교육이 자가검진 행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간호학회지 28(3): 718-728, 1998
- 6) 한국 중앙암등록 본부: 한국 중앙암등록 사업 연례보고서, 2008
- 7) 보건복지부: [http:// www.mohw.go.kr](http://www.mohw.go.kr), 2006
- 8) 국립암센터, 암정보자료: [http:// www.ncc.re.kr](http://www.ncc.re.kr), 2007
- 9) 최종숙, 박재용, 한창현: 일부 보건소 내소 여성의 유방자가검진과 유방암검진의 관련 요인. 건강증진학회지, 18(1): 61-78, 2001
- 10) 이영희, 이은현, 신공범, 송미숙: 국내여성과 미국이주 한국여성의 유방암에 대한 건강신념과 유방자가검진 비교. 대한간호학회지 34(2): 307-314, 2004
- 11) 허혜경, 박소미, 김기연: 일 지역 여성의 유방암 위험요인과 유방암 조기검진 행위 분포, 2005
- 12) Choi YH: The factors influencing the compliance of breast self-examination of middle-aged women. J Korean Acad Nurs 35(4):721-727, 2005
- 13) 이영희, 이은현: 장년기 여성의 유방자가검진 수행에 대한 예측변수. 성인간호학회지 13(4): 551-559, 2001
- 14) Ju HO, Kim JS, Cho YS, Park NH, Eo YS, Cho YR & Jeong IS: A survey on cancer screening among nurses at general hospital in Busan. Korean J women Health Nurs 9(1): 18-27, 2003
- 15) 한국통계청: <http://www.kosis.kr>, 2007
- 16) Kim MS: A study on Health Promoting Lifestyle of Hospital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Gwangju, 1999
- 17) 한미연: 직장여성의 유방자가검진 수행과 건강신념. 서울대학교 간호학 석사 학위논문, 2006
- 18) 이창현, 김영임, 정혜선, 김지윤: 산업간호사의 유방암 조기검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16권 제1호, 2005
- 19) Champion VL: Instrument refinement for breast cancer screening behavior. Nursing research 42(3): 139-143, 1993
- 20) Lee EH, Kim JS, & Song MS: Translation and validation of Champion's health belief model scale with Korean women. Cancer Nursing 25(5): 391-395, 2002
- 21) Rosenstock IM: The health belief model and preventive health behavior. In M. Becker, The health belief model and personal health behaviour. Therefore, N,J: Charles B. Slack, Jersey,1-8, 1974
- 22) 국민 건강영양조사: <http://knhanes.cdc.go.kr>, 2008
- 23) 김은경, 이해정, 안숙희, 정은순: 일부지역 간호사의 유방자가검진 이행 예측 요소. 대한간호학회지 제33권 제7호, 2003
- 24) 김영임, 이창현, 양수형, 정혜선: 외래내원여성의 유방암 조기검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15권 제1호, 2004
- 25) 국민일보: 유방암 조기검진, October 13, 2003
- 26) 오은주: 기혼여성의 자궁경부암에 대한 예방적 검진행위 관련요인. 고신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석사학위논문, 2005
- 27) 김영복, 노운녕, 이원철, 박용문, 맹광호: 성인여성의 자궁경부암 및 유방암 조기검진 수검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건강증진학회지, 제17호 1호, 2000
- 28) 한미연, 정재원: 직장여성의 유방암 검진행위 분석.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제 12권 제 4호, 2006
- 29) Choi YH: factors affecting the frequency of breast self-examination in Korean immigrant middle-aged women in the US. J Korean Community Nurs 11(2): 606-612, 2000